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3



▶한줄요약
석존이 남긴 성물(아디카야의 검)에 대해 알게 된 신문사 국장과 기자는 반신반의하며 논쟁 끝에 인도 현지로 가보기로 한다.

석존이 남겼다는 '검'은 과연 존재할까

어느 날 문득 3

공부 많이 했네요 하는 말이 나오려다가 목으로 도로 넘어갔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숨겨진 비장문헌을 찾아내는 이들이 어디 한 둘입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내가 말했다.

국장이 그렇겠지 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을 이었다.

-암튼 인도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석존의 제자인 아난존자가 석존으로부터 물려받은 검을 때가 되면 세상에 나갈 때가 있을 것이라며 숨겼다는 것이야. 그리고 아난존자는 갠지스강으로 나가 스스로 몸에 불을 댕겨 자화장을 했다고 해.

-그럼 그 기록물은 지금 인도 정부에 있겠군요?

-당연히 그랬을 거로 생각했는데 딱히 그렇지도 않나 봐.

-않다니요?

처음에 왈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졌겠지. 그러다 사라졌던 모양이야. 그것을 테르텐들이 찾아내 지금의 그곳에다 안장했다고 하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켜주었고…

-그럴 수가!

-테르텐들이 찾아낸 물건은 나라에서 간섭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 봐. 거 왜 있잖은가. 사자의 서라던가? 그것을 찾아낸 것도 개인인데 나라의 것으로 귀속시키지 못했다고 하니까. 나중에 심리학자 칼융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긴 했지만…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해도 안 된다?

-그런 모양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훈민정음 해례본 말이야. 그걸 개인 소장품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나는 할 말이 없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니 그 검을 서로 차지하려고 사람들이 찾아들었던 모양이야. 그러다 군인들에게 죽기도 하고… 그래서 종정 예하께서 날 보자고 했던 것이야. 사실 꿈도 이상하고… 그러고 보면 종정 예하의 의혹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야.

-그럼 개인 소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인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물이니까 뭐 사진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난 그런 성물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는데…?

-사진이야 물론 있을 테지.

-그런데요?

물론이라는 말이 걸려 내가 물었다.

-나도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없어. 인도 정부에서 자료 사진은 공개치 않는다는 것이야. 그들도 성물에 근접하지 못해 적외선 카메라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찍어낸 것 같은데… 왜 쉽게 말해 병원에 가면 인체 속을 찍어내는 MRI 같은…

-그러면서 인도 정부는 아직도 쉬쉬하고만 있다?

-맞아.

-세계가 놀랄 성물을 놓고 이걸 어떡해야 되나 끙끙 앓고만 있었다? 거 말 되네요. 하하하 도대체 말이 안 돼요. 미칠 것이 없어 그런 낭설에…

국장이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시선을 들었다.

-그렇긴 한데 종정 예하 말이야. 오도한 이후에 한 예언들이 거의 틀린 것이 없고 보면 말이야. 이번에도 어떤 확신이 드는 모양이야.

-확신? 무슨 확신요? 갖다 붙일 걸 갔다 붙여야지. 그게 성물이 진짜라고 해봐요. 세상이 가만 놔뒀겠어요. 난리가 났지. 낭설이고 가짜인 줄 아니까 아예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조심해.

-기자질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어쩌겠느냐는 듯이 국장이 난감한 어조로 중얼거리며 빈 찻잔에다 차를 따랐다.

-사진도 없는 성물? 하하하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들어도 웃겠네요.

그랬다. 석존이 칼을 남기셨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기자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그런 칼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기가 처음이다. 검을 우리말로 하면 칼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남기셨다는 검인지 칼인지 검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고 칼자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칼이 정말 인도에 있었다면 왜 몰랐는지 그것도 이상했다.

내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는데도 국장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예? 뭐가요?

-사실 인도 정부에서 누군가 가져갔다고 헛소리를 퍼뜨리는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다 거든.

-그런데요?

-인도 뉴델리안 신문에도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멍하니 국장을 쳐다보았다.

-그러니 어떡하겠어.

-뭘요?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종정 예하에게 말이 되냐는 소리를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물이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글쎄…?

-하긴 그게 더 일리가 있네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다시 터져 나오려는 걸 꾹 참고 내가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물을 탐낸 인간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가보라?



내가 바로 찔러 들어가자 국장이 맞서듯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맞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성물이 정말 동굴 석관 속에 있다면 옮기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군. 칼이 쇠이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다는 거지. 그리고 그 칼을 지키기 위해 왈리가 그 당시 썼다는 재료의 비밀을 아직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풍설 또한 있다고 하니까.

-하하 참 내. 그러니까 낭설이라는 겁니다. 어디 한두 번 당해봤어요. 아니 이집트 미라의 비밀도 풀어내는 판에…

말 같은 소리를 하라는 듯한 내 어투에 국장이 또 고개를 갸웃했다.

-인도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성물이 든 석관 뚜껑도 열지 못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속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손이 탈까 쉬쉬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성물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고서야 석관을 그대로 두고 어딘가로 옮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장이 정말 혼란스럽다는 얼굴로 동의를 구하듯 내게 물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더구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면서요? 군인들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훔쳐 갑니까? 군인들의 눈을 피해 그걸 누가 훔쳐 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게 진짜 석존이 남긴 성물이라면 지금이 어떤 시댄데 동굴 속에 방치하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좋아요. 성물이 그렇게 은밀히 숨겨져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역시 성물은 지금 거기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낭설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국장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지?

국장이 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재밌네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말았지만 고루하고 융통성도 없는 고집스런 종정의 모습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와 토착화되면서 생겨난 것이 종(宗)이다. 추구하는 것에 따라 종파가 생겨났다는 말이다. 화엄경을 중요시하는 화엄종, 법화경을 중요시하는 천태종, 명상 수행에 중점을 두는 선종, 깨끗한 곳에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정토종…

진리는 한바다인데 왜 대부분 늙어가면서 지도자들은 자신이 옳다고 하면 죽어라고 옳다고만 생각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젊은 비구 못지않게 혁신적인 비전의 소유자도 있다. 하지만 종정의 위치에 오를 정도로 수행했으면서도 고루함에 갇혀 있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루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환경 탓이겠지만 수행이 깊을수록 고집쟁이들이 많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말들을 예사로 하고 다닌다. 간밤에 자신의 스승을 저승사자가 데리러 와 준비하라 내일 데리러 오겠다 하고 가더라 하는 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음 날 스승이 명을 다한다는 사실이다.

성물을 찾아서 1

말도 안 되는 인도출장이 그렇게 결정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낭설에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어이가 없었다. 어디 한두 번 당해 보았나. 나로서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헛웃음만 나왔다. 스리나가르로 가서 성물을 확인하라고? 분명히 낭설일 터인데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풀어나가야 할지 기가 막혔다. 믿자고 해도 그렇고, 믿지 않으려 해도 그렇고. 정말 석존이 남긴 성물이 스리나가르에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의심만 할 것도 아니었다.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한두 번 속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나더러 또 믿고 가라? 언젠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지금도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다. 이상하긴 이상했다. 한 가닥 검은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곱슬머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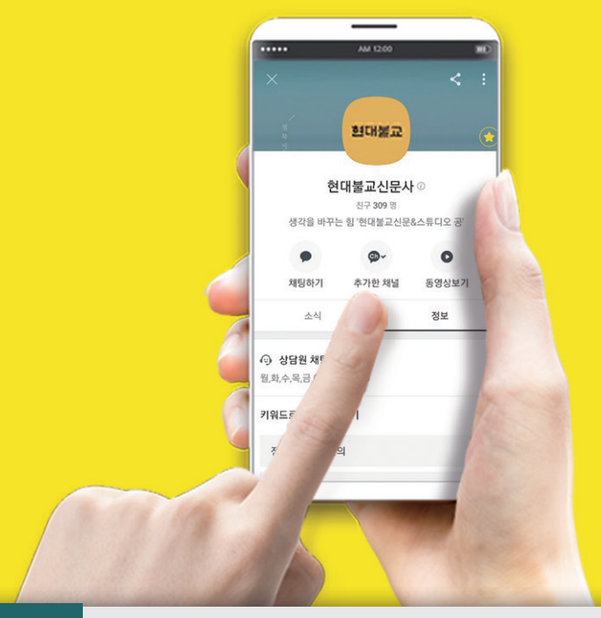
분명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었다. 얼굴이 검고 코가 높은 사람들이 보였다. 뒤이어 절이 보였고 그 절의 주지라고 하는 스님이 석존의 성물이 담긴 함을 내놓았다. 자신들이 모시는 석존의 머리카락 생사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해져 내려온 역사를 들먹이는데 절로 탄성이 나왔다. 석존 열반 후 그의 전신이 사리가 되었고 그것이 각 나라로 배분되면서 그때 남겨진 것이 머리카락 생사리라고 했다. 살아 있는 석존의 머리카락? 세상에 그런 성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석존이 세상에 남긴 생신사리라는 것이다.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칼이라고 한다. 안 믿자니 어쩐지 죄를 짓는 것 같고 믿자니 석연찮고…

불교는 과학이다. 현대과학의 방법론과 철저히 닮아 있다는 것은 불교사상 자체가 증명한다. 누구는 주먹구구식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5온, 12처, 18계, 22근, 4제, 12연기, 37보리분법으로 잘 조직되어 있다. 이것이 불교의 사상체계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분석적이다. 혹자는 말한다. 그럼 불교의 사상체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는 과학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에 과학적 방법으로 그 세계를 설명해 내는 방법론이 있다. 실증적 방법론이 그것이다. 〈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